

# 악행 넘치면 큰재앙 오고 천지 다시 시작

##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4)

세 가지 큰 재앙

천지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를 1겁이라 한다. 겁이 다하여 세상이 무너지려 할 때 화재(火災)가 일어나게 되는데, 모든 인간들이 정(正)을 버리고 사(邪)를 좇아 열 가지 악행만을 닦아 행한다.

하늘은 오랫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 씨를 뿌려도 나지 않고, 물이란 물은 모두 마르며, 바다 밑으로 들어간 바람이 해를 수미산으로 옮긴다. <잡아비담심론>에서는 “겁이 소멸되는 때에 일곱 개의 해가 있는데, 유건탄산에 머무르다가 거기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해 하나가 쪼개져서 일곱 개의 해가 되었다.”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아버지옥으로부터 중생의 업력 때문에 나온다.”고 했다.)

해가 하나가 나올 때에는 온갖 풀과 나무가 일시에 시들어 떨어진다. 해가 둘이 나올 때에는 백 유순으로부터 7백 유순에 이르는 4대해(大海)의 바닷물

나며, 죄가 아직 다하지 않았다면 다시 다른 장소로 옮겨 나는데, 그곳은 해와 달과 별도 없고 낮과 밤도 없는, 어둡고 빈 곳이다. 이를 화겁의 불의 재앙(火劫災)이라 한다.

인연과 과보가 여기까지 이르러 파괴되었다가 겁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불은 마침내 저절로 꺼진다. 바로 큰 구름이 일어나 점차로 큰비를 퍼붓고, 빗방울은 마치 수레바퀴의 굴대만 하다. 이때 삼천대천국토는 물론 그 속이 가득 차서 범천까지 이른다. <잡아비담심론>에서는 “수재로 무너지는 것은 제2선(禪)까지이고, 제3선부터는 물을 따라 뜨거운 잿물 비가 내린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수륜(水輪)이 나온다.”고 했다.)이를 수겁의 물의 재앙(水劫災)이라 한다.

다시 네 가지 바람이 물을 지탱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는데, 첫째가 주(住)이고, 둘째가 조(助)이며, 셋째가 부동(不動)이고, 넷째가 견(堅)이다. 수천억



삼화 · 강병호

이 저절로 마른다. 해가 셋이 나올 때에는 천 유순에서 7천 유순에 이르는 4대해의 바닷물이 차츰차츰 말라간다. 해가 넷이 나올 때에는 4대해의 깊이가 천 유순이 된다. 해가 다섯이 나올 때에는 4대해에 남아 있던 7백 유순의 바닷물이 다 마르게 된다. 해가 여섯이 나올 때에는 이 땅의 두께 6만 8천 유순에서 모두 연기가 솟고, 수미산으로부터 삼천대천 국토와 여덟의 지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불에 타 없어진다. 인간들은 모두 죽어 수미산에 의지하고, 다섯 하늘과 삼십삼천, 염천이며 타화자재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은 목숨을 마치게 되고, 궁전들은 텅 비며, 온갖 것이 무상해서 오래 머물 수 없다. 해가 일곱이 나올 때에는 대지와 수미산이 점점 허물어져서 백 유순까지 영원히 남는 것이 없고, 금·은·동·철의 종류는 모두 다 녹아 흘러 바짝 마르게 되며, 산은 다 텅 비게 되고, 모든 보배는 갑자기 터져버려 무너져 내리고, 연기와 불꽃이 진동하여 범천에까지 이르며, 온갖 나쁜 길과 아수라를 모두 없애 버린다.

죄가 끝나고 복이 다가온 이는 모두 제15천 이상에 모여며, 14천 이하는 모두 검은 재가 된다.

이 때, 새로 난 천자는 저마다 와서 “재앙이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으니 두려워 마십시오.”라고 위로한다.

인간들은 죽으면 광음천(光音天 색계의 스물 셋 하늘 중의 하나)에 나며, 생각(念)으로써 밥을 삼고 광명은 절로 비추며 신축으로 날아다닌다. 혹은 다른 국토에 나기도 하고, 지옥에 나기도 하는데 지옥의 죄가 다하면 또 천상에

만 년을 지나서 물 위의 거품이 천(千)의 제 14천국과 여러 가지 보배로 변화되고, 물이 점차로 줄어들며 거센 바람에 불려서 차례로 천하의 모든 하늘과 일월 궁전으로 변화하며, 다음에는 천의 수미산이 되고, 차례로 천의 사천과 땅과 산, 하천, 성곽 및 못이 되기에 이르는데, 이때에 마침내 물이 맑고 깨끗해진다.

처음에는 천궁이 많은 보배로 이루어져 광명이 가장 훌륭했다가 차츰 달해지고 점차 흐려져서 모든 하늘 궁전과 칠보의 광명이 점차로 낮아지고 떨어진다. 땅이 드러나려 할 때에 물과 모래의 흐름이 급하여 아래로 밀려닥치다가 드디어 하천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의 깊이는 8만4천 유순이요, 그 너비는 그치지않다.

수미산은 바다에 있는데, 바다 위로 나온 것이 또 8만 4천 유순이다. 물맛은 짜고 쓴데, 겉초에 이루어지는 때에 저절로 구름이 일어 광음천까지 피어 올라 두루 비를 퍼부어 천궁을 뒤엎고 만물을 씻어낸 더러운 물이 흘러 바다로 유입되어 바닷물은 짜고 쓴 물이 되었으며, 또 어느 큰 신선이 주문을 걸어 짜고 쓰게 하여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게 했으며, 또 여러 종류의 중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안에 오물을 버리고 배설을 하여 물이 짜고 쓰게 되었는데, 이를 풍겁의 바람 재앙(風劫災)이라 한다. <잡아비담심론>에서는 “봉재로 괴멸되는 곳은 제3선까지이며, 백억 사천하가 일시에 함께 무너진다.”고 했다.) 이 세 가지를 대겁(大劫)이라 한다.

<경률이상(동국대역경원)에서 발췌 구성=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④



### 건강한 몸으로 살때와 아픈 몸으로 살때

그림자가 나를 따르듯 삶과 죽음이 언제나 동반하고 있다.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살아 갈 때와 생각지 못했던 사고나 병고를 만났을 때의 세상은 너무나 다른 경험을 얻게 된다.

나는 그동안 건강한 편으로 잘 지내왔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었다. 신문이나 TV에서 뉴스로 보던 그 일들이 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란 걸 알게 되고 뜻하지 않은 수술과 임원을 하게 되니 모든 일들이 멈추어버렸다. 그냥 환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내가 평소에 늘 부처님 품속에 살았던 그 삶이 예외일 수 없었다. 날마다 아침이 밝아올 때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반듯이 누운 자세로 병실의 낯은 천정을 바라보며 소립사의 원만 부처님을 모시고 벽에는 ‘부처 佛’ 액자를 하나 걸었다.

마음으로 천수경 범화경요품 금강경 화엄경약한계 능엄신주 등을 하고 싶은 대로 읽고 마음껏 기도를 한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 매일 소문을 듣고 문병오는 많은 이웃들을 만나며 늘 죄송하고 황송하고 미안함이 은혜로 늘어나면서

-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아픈 몸 되니
- 삶과 죽음 늘 함께 있음 알게 돼
- 따뜻한 이웃의 은혜에 감사
- ‘방생하는 삶 살아야겠다’ 발원
- 업은 스스로 만들고 받는 것

감히 함부로 살 수 없는 나의 존재를 생각 해 보았다.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멈출 수 없는 은혜들을 들추며 모두를 향한 기도를 한다.

그리고 이 땅 내 나라에 감사하고, 내 부모 있어 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정법을 알게 해 준 큰 스승들께 감사하고, 먼저 깨달은 도반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이처럼 많고 많은 은혜를 어찌 다 나열할 수 있을까.

몸이 자유로웠던 지난날 느끼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이야 또 다른 나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나를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의 옷차림으로 그 날 그날의 날씨도 알고 각기 다른 취향을 보게 된다. 다들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들이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환자복 두벌만 필요 할 뿐, 잘 입어야 할 이유도 좋은 신을 신어야 할 이유도 또 화장을 해야 할 일조차도 없는 그야말로 수행인이 된 것 같다.

깊은 산 토굴에서 수행 하는 스님들이 두벌의 누더기와 발우 한 벌이면 족하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나도 감히 수행 중이라고 하면 맞는 말일까. 일찍이 나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또 기억난다. 손가락을 다쳐 피가 났을 때, “불효한 녀석! 부모가

몰려준 귀한 몸에 피를 흘리다니 머리칼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하겠거늘 피를 흘리다니. 스스로 몸을 잘 보살펴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야 하거늘 하물며 몸에 칼을 대라.”

이렇게 당부 하셨는데 지금 나는 큰 불효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나 업이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받는 것, 내가 격어야 할 운명 앞에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닌가. 그날의 상황에서 신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육신으로 살아 가는 이 세상에 내가 해야 할 숙제가 너무나 많아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순간순간 삶과 죽음이 늘 함께 있기에 언제나 명심해야 함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매 순간 순간을 돌아보아 허물없이 살며 부처님께 정진하여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계를 눈 감고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오늘도 “나는 누구일까?” 거울을 보면서 “당신! 더 잘 살아야 하는 거야 알지~ 당신은 당신답게, 세상 은혜 미루지 말고 진실한 삶, 그대로 모든 사람들과 실감 없는 기쁨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해.” 이렇게 다짐하며 나를 격려하기도 한다. 우리 소립사 도반 모두에게 잔잔한 슬비람의 향기 나누며 울해도 무사히 행복 나누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길 바란다. “너무도 많은 응원에 힘입어 더 따뜻한 모습으로 이 도량을 함께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이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나의 습관 길들이기  
나에게 어떤 습관이 있을까? 나의 일상에서 나쁜 버릇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나의 업으로 쌓여 나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리라.

내가 손님인 것과 주인인 것은 다른 것. 내가 주인공일 때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또 불이 꺼진 후에도 내 집의 물건이 있는 곳이나 화장실을 찾아갈 수 있지만 손님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그것은 내가 두고 보아온 그 자체가 내 기억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습이 된 것이다.

그뿐일까. 평소의 망상이 마음을 덮어 맑은 마음을 볼 수 없으니 자주 그릇된 망상을 벗어 줄 때 그 마음이 깨끗함을 가지게 되리니 나는 나의 습관을 잘 길 들여야겠다.

매 순간 죽고 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삶을 돌아보니 나 아닌 내가 되어 살아 온 날들이 너무나 많았다.

어제 일을 오늘 약속대로 하듯이 금생의 내 모든 삶이 습이 아닌 업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니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을 기동삼아 오직 바른 생각 바른 진리를 이해하고 가까이 하는 원력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 품속에 살도록 나를 방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부산 언꽃모임회장

# 불교전문쇼핑몰 **붓다북**에서 추천하는 겨울 상품

따뜻한 모자와 목도리로 겨울 **한파(寒波)**를 이겨내세요!



01 귀달이 양털모자 63,000원



02 화이바 겨울모자 40,000원



03 화이바 넥워머 32,000원



04 화이바 목도리 63,000원



www.buddhabook.co.kr ☎ 02)953-7181

